

청소년문학의 장르와 탈장르: 성장소설을 넘어서는 ‘독자성’을 중심으로

윤 현 진 (부산대)

< 목 차 >

- | | |
|-----------------|------------------|
| 1. 들머리 | 3. ‘탈장르’로서 청소년문학 |
| 2. ‘장르’로서 청소년문학 | 4. 마무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청소년문학을 소재, 즉 주제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청소년문학의 장르적 양식과 탈장르적 양식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문학을 소재의 측면으로 나누는 것은 워렌 Warren의 문학 분류 기준 중 내적 형식에 따른 것이다. 필자가 내적 형식에 주목한 것은 기존의 청소년의 ‘성장담’이라는 청소년문학의 보편적 특질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소년문학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이는 청소년문학에서 주제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란 물음에 주목함과 동시에 서사적 양식의 제재나 모티프에 대해 비교, 탐색하는데 초점이 있다. 즉, 청소년문학에서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참된 의도, 중심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표현론적 개념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장르의 ‘비순수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고정적, 도식주의적인 체계의 편견을 버리고 한 작품 내에 여러 장르의 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 작품 내에서 여러 장르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임을 인

정하되, 장르의 분류 기준은 명확히 하고 그것을 분류할 때는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장르적 성질의 것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장르'로서 청소년문학의 대표적인 소설 장르를 소재로 나누어 본 결과, 청소년소설이 가지고 있는 중심소재는 교집합이 없는 다양함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주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무엇'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문학으로서 청소년문학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청소년과 가장 근접한 문학이라는 것이다.

'탈장르'로서 청소년문학은 기존의 장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장르의 변형 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소설의 탈장르적 양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거나, 오늘날의 사회문제인 생태, 환경, 인종, 소수자(성 소수자를 포함)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문학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노력은 장르 연구를 통해 해소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목소리에 새롭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갈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청소년문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르적 양식을 넘어 탈장르적 양식이 갖는 의의이자 청소년문학을 역동적인 관점으로 드러다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청소년문학, 탈장르, 소설의 유형

1. 들머리

청소년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00년대 이후 높아지면서, 그것의 개념 규정과 범주, 역사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 청소년문학이 근래에 급속히 출판되는 것에 대해 '문학의 위기에 맞서기 위

한 출판 자본의 기획 상품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청소년소설의 상업성 비판 담론들²⁾이 제기 되기도 했다. 또한 초기 청소년문학은 작가가 자신의 청소년기를 회상하면서 쓴 서정성 짙은 회고조의 작품이 대부분이며, 요즘 청소년들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문학의 선정성과 소재주의를³⁾ 들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학은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르로 인식되면서 치열하게 개척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척을 통해 비로소 '청소년을 위한' 문학적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청소년문학의 창작과 보급의 빠른 속도에 반해, 그 동안의 청소년문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는 청소년문학의 정체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과 청소년문학이 갈래적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장르이면서 새로운 갈래의 생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소년문학은 저자의 의도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용어도 지금까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아동 및 청소년문학⁴⁾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통상 '성장소설'이라고 일반화한 논의도 적

-
- 1) 구체적 논의로 황광수 외 여럿, 「좌담 청소년문학, 시작이 반이다」, 『창비어린이』, 2004년 봄호 ; 황선열, 『아동청소년 문학의 새로움』, 푸른책들, 2008 ; 김경연, 『우리들의 타화상』, 창비, 2008 ; 김상욱, 「전복적 상상력으로서의 청소년문학」, 『내일을 여는 작가』, 2009년 여름호 ; 조은숙, 「풍문 속의 '청소년문학'」, 『창작과비평』, 2009년 겨울호 ; 원종찬, 「청소년문학 어디까지 왔다」, 「우리 청소년문학의 발전 양상」,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 박상률 외 여럿, 「기획특집 청소년문학의 오늘, 여기를 말하다」, 『대산문화』, 2011년 겨울호 ;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1. 등이 있다.
 - 2) 대표적으로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제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 64-66면을 들 수 있다.
 - 3) 특히 2007년 한 해 동안 출간, 발표된 청소년소설들에는 청소년의 성과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유독 많았다. 성폭력이나 미혼모, 원조교제, 동성애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목한 작품들은 소재의 특이성만큼이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것들도 있어 많은 논란거리를 남겼다. 송수연, 「청소년문학과 성(性)」,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6, 202-203면.
 - 4) 독일의 경우, 아동문학이나 청소년문학이라는 용어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문

지 않다.⁵⁾

그러나 ‘성장’이라는 기존의 장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청소년문학을 제한하기엔 청소년문학과 성장소설 간의 괴리는 분명 존재하며, 오히려 성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문학의 경우를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문학을 성장소설의 하위 갈래로 범주화 하려는 것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또한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을 ‘아동 및 청소년문학’이라 함께 명명하는 것은 아동문학이 성인문학과 구분됨에 따라 가질 수 있었던 모든 특수한 조건인 독자, 작가, 소재, 기능 등을 청소년문학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문학만이 갖는 특수한 특징을 청소년문학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성인문학과 아동문학의 경계의 문학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하고 연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은 따로 분리하여 명명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 청소년문학을 소개, 즉 주제의 측면으로 분류하고자 한 것은 워렌 Warren의 문학 분류 기준 중⁶⁾ 내적 형식⁷⁾에 따른 것이다. 내적 형식에 주목한 것은 기존의 청소년의 ‘성장담’이라는 청소년문학의 보편적 특질

학을 아우르다가 1970년대부터 아동 및 청소년문학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문학’ 연구 교육적 관점과 미적 관점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7면.

- 5) 청소년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청소년소설이 성장소설 장르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성장’을 꼽기 때문이다. 오세란, 『청소년문학의 정체성을 묻다』, 창비, 2015, 16면.
- 6) 워렌 Warren은 문학의 분류 기준을 크게 율격·구조와 같은 ‘외적 형식 outer form’과 창작 목적·어조·태도·주제와 같은 ‘내적 형식 inner form’의 두 가지로 내세우고 있다. Austin Warren & Rene Wellek, *The Theory of Literature*(백철·김병철 옮김, 신구문화사, 1959), 318면.
- 7) 장르를 외적 형식에 근거해서 구분할 때 서정·서사·극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만, 내적 형식을 기술할 때 서정적·서사적·극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장르기술에 있어서 형용사는 내적 형식의 기준을 가리키는 경우와 ‘양식’의 개념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지성사, 1990, 13면.

을 크게 헤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소년문학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이는 청소년문학에서 주제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란 물음에 주목함과 동시에 서사적 양식의 제재나 모티프에 대해 비교, 탐색하는데 초점이 있다. 즉, 청소년문학에서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참된 의도, 중심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표현론적 개념에 중심을 두었다. 다만, 장르의 ‘비순수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고정적, 도식주의적인 체계의 편견을 버리고 한 작품 내에 여러 장르의 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작품 내에서 여러 장르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되, 장르의 분류 기준은 명확히 하고 그것을 분류할 때는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장르적 성질의 것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청소년문학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는 노력은 장르 연구를 통해 해소(解消)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목소리에 새롭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갈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청소년문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르적 양식을 넘어 탈장르적⁸⁾ 양식이 갖는 의의이자 청소년문학을 역동적인 관점으로 드러다 보게 하는 원동력이다.

2. ‘장르’로서 청소년문학

2000년대 이후 출판되고 있는 청소년문학의 주된 장르는 서사적 양식이

8)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탈장르라는 명칭은, 문학의 장르 genre를 나눌 때 쓰이는 ‘장르類’가 아닌 ‘장르種’이라는 작은 갈래를 의미한다. 장르종은 매우 복잡하고 시대마다 커다란 변화를 반영하여 나타나므로 어떤 법칙성을 부여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청소년문학에서 나타난 기존의 장르적 성질을 넘어서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변이형, 새로운 경향의 종을 ‘탈장르’라 명명하고자 한다.

다.9) 사계절에서는 2007년 수필집 2권 『사람 사이에 삶의 길이 있고』, 『조금만 눈을 들면 넓은 세상이 보인다』를 비롯해 2008년 청소년이 직접 쓴 글을 모은 『세 번째 교과서』를 출간했고, 창비에서는 2010년 청소년을 위한 시집 『난 빨강』을 시작으로 2015년에 본격적으로 청소년 시선집 3권 『의자를 신고 달리는』, 『처음엔 삐딱하게』,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을 출간했다. 이처럼 청소년문학이 다양한 장르를 모색하는 길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나, 아직까지는 서사적 양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사적 양식의 대표적인 소설 장르는 당대의 시대상황이나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소설은 사실의 기록이 아닌 만큼, 주변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설에서 반영되어 있는 현실은 현실세계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의 해석과정을 거쳐서 반영된 현실이다. 소설의 현실은 ‘상상’의 세계이고,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럴싸하게’는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에 구체성과 진실성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소설의 리얼리즘 결여, 즉 청소년의 삶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문제점¹⁰⁾으로 거론되는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에서 리얼리티(사실성)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 결과이다. ‘리얼리즘 문학의 중요한 매체’¹¹⁾인 소설은 리얼리즘의 이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특성이 가장 잘 실현되는 장르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그 안에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경험적인 현실을 재창

9) 지금까지 청소년문학은 다양한 장르類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소년문학이라 하면 청소년소설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기존의 연구자들도 청소년문학, 청소년소설의 개념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해왔는데, 본고에서도 청소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설 장르에 국한되는 검토를 할 때는 청소년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0) 구체적으로 정혜경, 「이 시대의 아이콘 ‘청소년’(을 위한) 문학의 딜레마」, 『오늘의 문예비평』, 2008 겨울 통권 71호, 2008, 107-123면 ; 허병식, 「청소년을 위한 문학은 없다」, 『오늘의 문예비평』, 2009 봄 통권 72호, 2009, 63-82면. 등이 있다.

11) Harry Levin, *Contexts of Criticism*, Cambridge/M.A.: Harvard UP, 1957, p.71.

조하여 모방하려는 우리의 본능과 인식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¹²⁾장르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청소년의 현실을 청소년소설이 갖는 어떤 특수한 양식에 가두려고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모든 청소년소설이 청소년의 사실적 삶을 그대로 형상화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청소년소설은 ‘작가에 의해 재탄생’된 청소년들의 이야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 소설은 단지 청소년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작가에 의해 현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라는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동일한 소재로 형상화한 청소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에 의해 어떻게 표현 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박상률의 『나는 아름답다』(사계절, 1999)의 중심소재는 정체성이다. 어머니의 부재와 외로운 객지 생활, 짝사랑의 열병, 담임 선생님과 또래 아이들로부터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 남선우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이성의 동경, 실존 문제, 허무와 고독 등의 문제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작품이다. 이 소설은 박상률의 『봄바람』이란 소설과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복잡한 청소년기의 특질을 풍부하게 보여 준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같은 외적 현상보다는 내면에 감추어진 사춘기의 불안과 내적 심리, 자신에 대한 성찰, 세상을 보는 관점 등 청소년기의 의식과 정서를 조명하고 있다.

한편 임태희의 단편집 『정체』(바람의아이들, 2013)의 중심소재 또한 정체성이다. 주인공이 우연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은 『정체』에 실린 다섯 편의 단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다. 열아홉 살이라는 청소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빛나던 한때로 회상되거나 관조의 대상이 되는 대신, 주인공들은 ‘현재진행형’으로 영원히 적응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내고, 쉽

12) 임철규, 『우리시대의 리얼리즘』, 한길사, 2009, 110면.

게 늘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방향을 찾다가 애초부터 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청춘의 진짜 ‘정체’임을 깨닫게 된다.

두 작품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을 형상화하면서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지만, 작가의 표현론적 방법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중심소재를 통해 분류한 청소년소설

중심소재	청소년소설
정체성	박상률의 『나는 이름답다』(사계절, 1999), 김민경의 『앉아있는 악마』(비룡소, 2010), 남상순의 『키스감옥』(문학과지성사, 2012), 임태희의 『정체』(바람의아이들, 2013), 이남희의 『비밀 노트와 힐링 글쓰기』(실천문화사, 2013)
가족	남상순의 『나는 아버지의 친척』(사계절, 2006), 박선희의 『도미노 구라파식 이층집』(사계절, 2011), 김이운의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창비, 2012), 최모람의 『마음이 사는 집』(북멘토, 2013), 김윤영의 『달 위를 걷는 느낌』(창비, 2014), 홍명진의 『엘리스의 소보로빵』(북멘토, 2015)
우정	박선희의 『파랑지타가 달려간다』(비룡소, 2009), 신여랑의 『이토록 뜨거운 파랑』(창비, 2010), 신지영의 『프렌즈』(북멘토, 2013), 황성미의 『틈새 보이즈』(문학과지성사, 2016), 이은용의 『그 여름의 크리스마스』(문학과지성사, 2016)
성(性)과 사랑	이재민의 『시슴벌레 소년의 사랑』(사계절, 2003), 김종광의 『처음 연애』(사계절, 2008), 권하은의 『바람이 노래한다』(창비, 2009), 임태희의 『나는 누구의 아바타일까』(사계절, 2007), 이옥수의 『키싱 마이 라이프』(비룡소, 2008), 최인석의 『악탈이 시작됐다』(창비, 2010), 김하은의 『얼음 봉대스타킹』(바람의아이들, 2014), 진희의 『첫눈이 내려』(사계절, 2015)

중심소재	청소년소설
죽음	이경혜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바람의 아이들, 2004), 박재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사계절, 2009), 한정음의 『비보이 스캔들』(북멘토, 2012)
꿈	한정기의 『나는 브라질로 간다』(비룡소, 2008), 이제미의 『번데기 프로젝트』(비룡소 2010), 최민경의 『십자매 기르기』(문학과학지성사, 2011), 탁경은의 『싸이퍼』(사계절, 2016)
학교와 선생님	김중미의 『조커와 나』(창비, 2013), 김현희의 『팥빵 먹을래, 크림빵 먹을래?』(실천문학사, 2014), 김종광의 『착한대화』(문학과학지성사, 2009), 배봉기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사계절, 2009), 김해원의 『열일곱 살의 털』(사계절, 2008), 김도연의 『삼십 년 뒤에 쓰는 반성문』(문학과학지성사, 2010)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 청소년소설이 가지고 있는 중심소재는 교집합이 없는 다양함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주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무엇’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문학으로서 청소년문학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청소년과 가장 근접한 문학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은 삶을 위한 전략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주변에서 찾고 있다. 이때 청소년소설이 갖는 주제의 보편성은 결국 작가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삶의 가치 본질을 구명하는 일로 귀결될 수 있다.

청소년은 문학을 읽을 때, 그들은 삶을 위한 전략들을 찾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문학의 사회학 기능 작용에 주목하여 청소년문학이 청소년에게 ‘은밀한 교육자’¹³⁾로서 기능한다는 교육적 관점도 결국 청소년문학을 창작하는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청소년문학을 읽는 독자(가장 대표적인 독자는 바로 ‘청소년’)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포스터 Forster는 현대소설의 주요소설이 ‘사랑’, ‘죽음’, ‘밥’, ‘탄생’, ‘수면’

13) 김경연, 앞의 논문, 1999, 16면.

다섯 가지로 압축되는 인간사를 다루고 있다¹⁴⁾고 분류하여 제시했는데, 청소년소설도 이 보편적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포스터가 말한 다섯 가지 주제 중 가장 중시 되는 ‘사랑’은 청소년소설에서 이성적 관계, 호기심의 충동으로써 느끼는 사랑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정체성’과도 연결이 된다. 청소년기는 삶과 세상에 눈떠 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강렬해지는 반면 현실은 청소년에게 많은 것을 제약하고 강제한다. 게다가 지나친 입시 경쟁과 학교의 강제, 어른들의 무관심은 이들의 갈등과 방향을 더욱 부체질한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학을 읽는 이유는 바로 청소년문학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소설에 형상화된 주인공들은 청소년과 비슷한 연령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 인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러한 탐구를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서 주변상황들, 삶에 대한 여러 양상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된다. 특히 정체성에 중점을 둔 소재의 소설들은 사춘기의 불안과 내적 심리, 자신에 대한 성찰, 세상을 보는 관점 등 청소년기의 의식과 정서를 밀도 있게 드러낸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앉았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세우고 각지를 꺾다. 악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 나처럼. 탄탄한 근육을 가진 악마, 하지만 꺾진 손가락은 힘이 없어 보이고, 어깨와 등은 구부정하다. 목도 길게 빼고 있다. 누가 가서 일으켜 세워 주지 않으면 악마는 계속 저렇게 앉아만 있을 것 같다. 악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갈 길을 몰라 하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저렇게 앉아 있나, 나처럼……. - 『앉아있는 악마』(비룡소, 2010, 155면.)

김민경의 『앉아있는 악마』(비룡소, 2010)는 해체된 과거 속에서 비롯되는 출생의 비밀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주제임을 생각하면 이

14)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66, p.61.

작품이 출생에 대한 의미를 서사의 근거로 삼는 까닭이 이해된다. 주인공이 보이는 불확실성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사회적인 열등감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심리적 불안은 주인공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되기 전, 혼자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의 두려움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삶에서 가족이란 소재는 청소년의 ‘존재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혹은 형제, 자매, 남매의 문제를 통해 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거나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엄마 옆엔 항상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했다. 엄마가 돌아온 후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졌다.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아빠는 엄마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울 수도 없고, 엄마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일하다 말고 집으로 올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에게 엄마는 함부로 떼어 낼 수 없는 커다란 혹과 같다. 엄마이기 때문에 떼어 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데나 달고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혹. - 『엘리스의 소보로빵』(북멘토, 2015, 20-21면.)

꿈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철민이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엄마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철민이는 꿈속에서도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꿈이 끝날 때쯤이면 아버지가 잠든 철민이를 깨우며 이런 말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날래 일어나라우. 이제 그만 오마니한테로 가야 하지 않겠음둥? 백두산이 언제 터질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 『마음이 사는 집』(북멘토, 2013, 180면.)

홍명진의 『엘리스의 소보로빵』(북멘토, 2015)는 치매에 걸린 엄마를 둔 열네 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엄마는 엄마만의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아빠와 오빠를 대신해서 떼어 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데나 달고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혹이 되어버린 엄마를 보살피는 건 자

연스럽게 두희의 몫이 되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엄마이지만 열네 살 두희에게는 그 이름이 종종 무겁게만 느껴진다. 그 커다란 아픔 속에서 때때로 눈물을 쏟기도 하지만 일곱 살 엄마를 돌보기 위해 강단 있게 걸어가는 두희의 모습에서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최모림의 『마음이 사는 집』(북멘토, 2013)은 한 소년의 잔잔한 일상의 전개 속에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장치를 숨겨 놓았다. 바로 ‘팽이밥’과 ‘참매미 이야기’이다. 팽이밥은 ‘거울을 닦으면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보여 주는 풀’로 철민이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해소하는 장치가 된다. 참매미를 쥐면 울음소리가 손에 배어든다는 이야기는 철민이가 북쪽에 계신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기억을 불러 오는 장치들이 작품 끝에서 다시 재등장하는 것은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되새기는 ‘가족’의 의미를 던지던 지고자 함이다.

청소년기는 또래문화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비슷한 연령에 있으면서 물리적·사회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친구에 대한 의존이 크고, ‘조건 없는 우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우정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도 주로 힘든 상황에 대한 ‘공감’과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작품들로 주로 그려진다.

준희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마치 언니라도 되는 양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준희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아기였을 때조차 울지 않고 잘 자던 내가 울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한번 시작된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밤은 우리를 가깝게 했다. 두려움과 공포와 낯선 것들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 서러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세계가 조금은 덜 두려웠던 건 옆에 준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굳히 자고 있는 준희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 『그 여름의 크리스마스』(문학과지성사, 2016, 20면.)

준희와 현아, 그리고 나는 각자의 방식대로 버티고 있었다. 어디에서 보든

결국 하나의 존재였는데, 그걸 몰랐다.

- 함께 있었다라면 좋았을 거야. 다른 방향을 보았다더라도 서로의 말을 들어 주고 서로가 본 걸 얘기했다라면, 그랬으면 알았겠지. 왜냐면…… 우리는 같은 걸 보고 있었으니까. - 『그 여름의 크리스마스』(문학과지성사, 2016, 228-229면.)

이은용의 『그 여름의 크리스마스』(문학과지성사, 2016) 낯선 필리핀 유학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주인공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결국 똑같은 곳이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다. 한국에서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일과 녹록치 않은 유학 생활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크리스마스를 함께하자던 준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이진의 여정은 중요하다. 일련의 사건들 속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바로 친구와 지금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성적 충동과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이며 성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고정된 신분에 가두고 적어도 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자연스러움’이 아닌 ‘문제적’인 존재로 규정해왔고, 청소년의 성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불투명하고 은밀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의 성을 음성화하고, 성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심각한 성적갈등과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은 정말 ‘문제적’인가? 흔들리고 있는 청소년의 성을 청소년소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 선택과 포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미리 약속하지 않은 이상 어느 쪽으로 뒤집어도 정답은 없다. 아기를 없앤다. 아니 낳아서 기른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와 내가 살 길은 어디에…….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 『키싱 마이 라이프』(비룡소, 2008, 111면.)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성(性)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옥수의 『키싱 마이 라이프』(비룡소, 2008)는 열일곱 살의 청소년 하연이가 미혼모가 되는 이야기로, 너무나 사실적이고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 우연히 임신을 하

게 된 하연이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의 당황스러운 마음, 아기를 없애고 싶은 갈등, 낳고 나서는 길러야 할지 입양시켜야 할지의 선택의 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 아기를 낳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섬세하게 잡아내고 있다.

이경혜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바람의 아이들, 2004)는 열여섯 살 소년의 죽음에 주변 사람의 아픔을 그린 작품으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이야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질문하며, 더불어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청소년들의 욕망으로 표출되는 상징으로 오토바이를 끄집어내었는데, 욕망의 표출은 ‘죽음’과 이어지게 된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죽음의 의미는…… 모르겠다. 아마도 평생토록 나는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내 평생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죽음이 지극히 어이없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가르쳐 주고 갔으니까.

-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바람의 아이들, 2004, 184면.)

재준은 자신이 죽었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일기장에 조금씩 풀어나간다. 재준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여느 청소년들처럼 후회, 슬픔, 고민, 분노를 반복한다. 그러나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부모님의 꾸중, 학업에 대한 고민도 자신의 죽음에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응시해나가면서 그런 일상들을 삶의 한 의미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청소년들에게 ‘바로 지금’,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재를 통해 분류하여 살펴본 청소년소설은 마르안느 허쉬 Marianne Hirsch가 제시한 교양소설 Bildungsroman에 근접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허쉬의 글 *The Novel of Formation as Genre : Between*

Great Expectation and Lost Illusions,《Genre》12 (1979, 가을)에서는 영어의 성장소설 the novel of formation이 독일어의 교양소설 Bildungsroman의 번역어임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양소설이 본질적으로는 초장르적, 초유형적 개념임을 밝히는 데서 시작 한다 15)고 말한 것은 교양소설이 기본적으로 ‘명료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료한 개념으로 다듬을 필요성을 제시하며, 교양소설과 유사개념들을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6)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소년소설은 청소년들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자기교육’17)을 목적으로 청소년 주변의 다층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소설의 소재가 어떠한가,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였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성장소설의 한 유형의 잣대로만 청소년소설을 바라보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소설은 본래 여러 갈래를 가질 수 있는 장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

15)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유형론연구』, 집문당, 2004, 62면.

16) 교양소설(Bildungsroman): 괴테식의 ‘교양’ 개념을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둔다.

교육소설(Erziehungsroman, novel of education): 막연히 성장이나 발전의 문제를 다룬 것이기보다는 루소의 《에밀》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이나 학교의 문제를 다룬 소설

발전소설(Entwicklungsroman): 독일문학에서는 가장 포용력이 큰 개념이 사용되었다. 괴테를 의식하기는 하나 괴테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설유형이다.

성장소설(novel of formation)의 유사개념으로는 발전소설(novel of development), 교육소설(novel of education), 도제소설(novel of apprenticeship), 입사소설(novel of Initiation), 청년소설(novel of youth) 등이 있다. 조남현, 위의 책, 2004, 62-63면.

17) 소설을 짓고, 읽고, 소통하는 인간의 행위를 소설현상(小說現象)이라고 규정한다면, 소설가의 소설작업은 언어적 존재인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다. 독자의 소설독서 또한 반응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가치론적 문제를 불러온다. 인간의 자아실현과 연관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현상을 언어운용의 본질 국면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교육의 문제와 분리하여 논할 수 없다.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 성장 등과 연계되는 사항이다. 교육은 인간의 이념이란 국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다. 우한용,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4면.

년소설은 개념적, 갈래적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장르이자, 새로운 갈래의 생성을 기대할 수 있는 탈장르적 양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3. ‘탈장르’로서 청소년문학

모리스 블랑쇼 Maurice Blanchot의 저서 『미래의 책』에서 묘사한 텍스트의 불완전성 개념에 대해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¹⁸⁾

모든 텍스트는 하나 또는 여러 장르에 참여하며, 장르 없는 텍스트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언제나 하나의 장르 또는 장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텍스트가 장르에 참여하는 것이 텍스트가 장르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풍부하고 넘치는, 또는 자유롭고 불확실하며 분류할 수 없는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참여 그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데리다 Derrida에 따르면, 문학의 불확정성이 문학 텍스트와 장르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텍스트는 동시에 여러 장르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텍스트적 수행은 그것이 참여하는 장르를 반복하고, 혼합하고, 확대하고, 또한 잠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장르의 해체는 기존의 장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장르의 변형 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장르는 서로 결합하고 뒤섞여서 수많은 변종들을 낳는다.¹⁹⁾ 특히 서사적 양식의 경우, 주제적 의미에서 폐쇄적인 틀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문학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드넓은 지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많은 문학적 텍스트들이 그 가능성의 지대를 넘나들고 있다. 청소년소설의 탈장르적 양식도 기존의 청소년소설을 바라보는 보

18) 아니스 바와시·메리 요 레이프, 정희모 외 여럿 옮김, 『장르: 역사·이론·연구·교육』, 경진출판, 2015, 49-50면.

19) 박진, 『장르와 탈장르의 네트워크들』, 청동거울, 2013, 5면.

편적이고, 패쇄적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장르의 변형은 장르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장르 내적 요인들이 중심이 된다.²⁰⁾ 장르의 내적 요인 중 중심이 되는 ‘소재’는 작은 갈래의 목록이자, 한 장르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우리의 주위에 널려있는 소재가 작가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다는 자체가 벌써 작가의 주목을 받은 것이며, 그러한 주목은 작가가 그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갖은 소산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작은 갈래의 변형 요인이 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청소년소설은 대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소재인 청소년의 삶, 주변 환경, 그리고 그들의 하위문화와 관련되어 작가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보편적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표 2] 역사적 사건을 다룬 청소년소설

중심소재	청소년소설
한국전쟁	문선희의 『장다리꽃』(사계절, 2004),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문학과지성사, 2010), 이경자의 『순이』(사계절, 2010), 이현의 『1945, 철원』(창비, 2012), 이현의 『그 여름의 서울』(창비, 2013)
광주민중화항쟁	박상률의 『너는 스무 살, 아니 만 열아홉 살』(사계절, 2006), 정유정의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비룡소, 2007), 박향의 『얼음꽃을 삼킨 아이』(실천문학사, 2010), 장우의 『빼앗긴 오월』(사계절, 2015)
유신체제	이상운의 『내 마음의 태풍』(사계절, 2004), 박영희의 『대통령이 죽었다』(실천문학사, 2009)

20)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28면.

중심소재	청소년소설
새마을 운동	황선미의 『바람이 사는 꺾다리 집』(사계절, 2010)
사북항쟁	이옥수의 『내 사랑, 사북』(사계절, 2005)

그런데 [표 2]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청소년소설에서는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나 역사적 사건 자체를 소재로 한 작품이 더러 있다. 이렇게 서술된 이야기는 일회적 진실만을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적 소설이다.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적 사실을 선택해서 그것을 체계화하여 그 사건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성을 밝혀내어 얻어진 역사적 질서를 서술한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소설을 쓰는 작가는 그렇게 밝혀낸 사건을 다시 서사적 양식으로 형상화한다. 역사소설은 전설, 자서전, 체험기, 증언, 여행기와 같은 역사적이라는 글과는 분명 구별된다. 여기서 작가가 사실을 이용하고 그 사실을 허구로 변형시키는 것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실과는 상관없이 ‘지어낸 소설’이라 말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현실과 일치하는 이야기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실재, 지나친 계몽성, 객관성, 리얼리티(사실성)의 문제성이 늘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소설이 역사적 서사성과 문학의 허구성이 결합하여 나타난 장르임을 인식한다면, 역사소설에서 문학적 재현의 근거로 작용한 역사적 사건의 권위가 약화되고, 역사의 기록들에 개입하여 진실을 재구성, 재창조하는 허구적 상상력의 가능성과 의의는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시대에서 역사와 문학이 진실-허구, 객관성-주관성, 진지함-진지하지 않음 등의 단순히 이분법에 의해 구분 되었다면, 지금은 서로 교차하고 뒤섞이면서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청소년소설은 특정 시대와 그 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갈등에 대한 통찰력을 주인공 청소년의 시선에서 형상화하거나, 과거 소년,

소녀들의 생활과 생각에 대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소설의 경우, 사회비판적 르포르타주 Reportage의 성격이나 정치적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이면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탐색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장우의 『빼앗긴 오월』(사계절, 2015)은 광주 근교에서 순박하게 살아가던 이들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1980년 광주를 재조명한다. ‘돼지장수’라 불리는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착하고 순수한 세 남매의 행복한 일상이 시대의 아픔을 만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애달프게 그려냈다. 평범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우리는 80년 광주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과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형이 있는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때문이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불순 세력이 학생과 시민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시민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는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고, 그 바람에 내 생일은 까맣게 잊었다. (... 중략 ...)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만큼 심각했고, 우리 집은 준영이 형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 『빼앗긴 오월』(사계절, 2015, 171면.)

열세 살 준호의 시선으로 당대 사람들의 삶과 시대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빼앗긴 오월』은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픈 기억을 재생하는 경험담이자, 점차 잊히는 역사적 진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손을 꼭 잡은 작가의 끈질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화제를 삼아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겨운 1980년 광주의 이야기를 딱딱한 역사책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청소년이 접할 수 있다면 당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의 아픔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둔 청소년소설 장르의 경우, ‘장면속 시대’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이 읽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세계관, 이념이

작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문학에서 소재는 작가의 체험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작가가 그 소재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각자 다를 수 있고, 작가의 체험도 일종의 세계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대응하고, 인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러한 소설을 읽는 경우, 기본적인 역사적 사건의 사실적 측면을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시점에 읽는 것이 권장된다.

하나의 문학 장르란 그 자체로서도 유동적이지만, 다른 장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유동적이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시대적 배경을 조선시대로 설정한 한 작품도 있는데, 하은경의 『우리들의 작은신』(바람의아이들, 2010), 김나정의 『구야, 조선 소년 세계 표류기』(문학과지성사, 2014), 박정애의 『용의 고기를 먹는 소녀』(창비, 2015), 김소연의 『굿바이, 조선』(비룡소, 2015)이 그것이다. 이 작품들은 청소년소설에서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작품들로, 모두 조선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주제적 측면에서 청소년소설이 끊임없이 다른 장르와 교섭하고자 한 결과이며, 기존에 설정된 장르들 간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장르 체계를 형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장르들 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며, 기존의 청소년문학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긍정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나는 머리를 도령처럼 땀아 복건을 쓰고, 깃이 곧으며 소매가 넓은 사급삼을 입었다. 허리에는 조대를 띠고 발에는 태사혜를 신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락없이 솜털 보송보송한 양반집 도령의 품모로다. 애고, 네가…….”

어머니가 삼킨 그다음 말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복이 없어 내 딸로 태어났구나. 양반집 도령으로 태어났으면 네 재주와 품모로 판서를 못 했으랴, 정승을 못 했으랴.

- 『용의 고기를 먹는 소녀』(창비, 2015, 29면.)

조선 후기 실존 인물인 여성 시인 김금원의 청소년 시기 삶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박정애의 『용의 고기를 먹는 소녀』(창비, 2015)의 경우, 자기에 깊고 호기심 강한 소녀 ‘앵앵’가 기생첩의 딸이라는 신분과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남자 옷을 입고 유람을 떠나면서 미처 모르던 진짜 세상과 마주한다.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비롯한 유람 경험을 엮어 기행문 『호동서라기』를 쓴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갖은 속박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최대한 자유를 좇으며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앵앵의 이야기는 기생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제 뜻을 펼칠 수 없는 당시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는 동시에 세상에 나서고 싶다는 열망을 지녔다. 조선 시대와는 다르지만 지금도 학력, 직업, 외모 등 갖가지 기준이 사람 사이를 구분 짓고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기준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져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당찬 소녀 앵앵의 유람기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뚜렷한 자의식의 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현재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역사적 과거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의 경향을 보여준다.

[표 3] 그 밖의 소재를 다룬 청소년소설

중심소재	청소년소설
다문화가정	조명숙의 『농담이 사는 집』(문학과지성사, 2010), 최성수의 『무지개 너머 1230마일』(실천문학사, 2013), 변소영의 『이히 리베 디히』(북멘토, 2014)
동성애	이경화의 『나』(바람의아이들, 2006), 박선희의 『줄리엣 클럽』(비룡소, 2010), 김이연의 『나는 즐겁다』(사계절, 2011), 송경아의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창비, 2013)
동물교감	김혜정의 『독립명랑소녀』(문학과지성사, 2011), 한정영의 『오드아이 프라이 데이』(사계절, 2014)
생태, 환경	김한수의 『너 지금 어디 가?』(창비, 2013), 최성각의 『거위, 맞다와 무답이』(실천문학사, 2009)

중심소재	청소년소설
인종차별	김수경의 『망고 공주와 기사 올리버』(사계절, 2009)

그 밖의 소재를 다룬 청소년소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사회문제인 생태, 환경, 인종, 소수자(성 소수자를 포함)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소설에서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소설은 다문화화 심각하게 다루진 않는다. 대부분 한국전쟁 전후의 일본인, 베트남인 혼혈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한국내의 외국인 이주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 한국내의 외국인 이주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 에 국한²¹⁾되어 나타나는 한국문학의 지극히 다문화주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명숙의 『농담이 사는 집』(문학과지성사, 2010)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주인공 영은의 가정도, 까무잡잡한 피부의 베트남 유학생 수양 역시 다문화 가정의 일원이다. 의료봉사단으로 베트남을 찾았던 한국인 어머니와 베트남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지금은 유학생 신분으로 어머니의 나라에 와 있는 것인데, 생김새가 다른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 영은이에게 또 다른 모습의 수양은 낯설거나 거리낌의 대상이 아니다. 영은에게 수양은 이방인으로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인터넷을 뒤져 동성애에 대해 검색해 볼수록, 아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룻밤에도 수십 번씩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다. 나를 덮친 낯설고 두렵고 허용되지 않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 극복은커녕 더욱더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21) 21세기적인 다문화는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노마드(nomad)와 디아스포라(diaspora)의 일반화 현상이 깔려 있다. ... 노마드와 디아스포라 의식을 그린 한국문학이란 해외동포는 아니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장기 체류자나 유학생 등을 그린 작품을 지칭한다. 임현영 외 여럿,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2, 15-37면.

그러면서 동일이에 대한 애정은 점점 더 벽차게 커져 갔다. 그래, 그것은 애정이었다. -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창비, 2013, 55면.)

2006년 이경화의 『나』(바람의아이들, 2006)를 시작으로 동성애 소재는 지속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동성애는 ‘정체성’과 ‘성’이라는 소재의 결합이면서, 선천적, 평범함으로 인식되어 왔던 이성애라는 규범적 ‘자아’와 동성애라는 소수자, 즉 ‘타자’ 사이의 구분에 의문을 제시한다. 송경아의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창비, 2013)의 주인공은 평범한 청소년 성준이는 동성애자라는 점만 빼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생 누나인 애경이와 한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매가 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일이다. 평범함의 진리를 넘어서는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청소년에게 다소 낯설음을 주지만, 소설 장르가 가진 리얼리즘의 고정된 정체성과 도덕적, 지적 입장을 넘어서 문학적 리얼리즘을 뒤엎는 다면적인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타자에 대한 공감’, ‘열린 성(性)’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야, 달팽이다.”

새싹을 숨던 누군가 달팽이를 손등에 올려놓고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 애를 보고서 피식 웃었다. 텃밭 동아리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벌레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벌벌 떨던 녀석이 달팽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게 제법이다.

하긴 녀석뿐만 아니라 벌레만 보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줄행랑을 놓던 아이들 대부분이 벌레에 익숙해졌다. - 『너 지금 어디 가?』(창비, 2013, 217-218면.)

김한수의 『너 지금 어디 가?』(창비, 2013)는 텃밭 동아리에서 만난 다양한 아이들을 모델로 삼은 이야기로, 교훈적 이야기가 아닌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비켜서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헤쳐 나가는 청소년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텃밭의 채소, 작은 벌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존하는

삶,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면서 인간이 아닌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였다.

생태, 환경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소설은 환경 재난, 생명과학, 공상과학 등의 소설 장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정작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이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태,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한 소재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이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자극적, 계몽적이라고 평가 받는 청소년소설의 서사적 양식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할 만하다.

4. 마무리

현대에 이르러선 장르에 대한 논의가 “규범적이기보다는 기술적(記述的)이고, 독단적이기보다는 시험적이며 역사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경향”²²⁾을 보이고 있다. 허구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 양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식적 특질을 지니고 있는 하위 장르로 변모하고 있다. 서구의 예를 들면 서사시, 로망스, 노벨, 반소설 등의 양식이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신화, 영웅서사시, 가전체소설, 조선조의 영웅의 일대기, 개화기의 신소설과 현대소설로 그 양식이 변모한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소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장르이다. 그것은 현재에도 ‘형성’ 중이며,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문학에서 소재의 다양함은 청소년문학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소재는 본질에서 현상으로 나타난 하나의 양상인데, 이것을 변형하면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최근 아동문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동화²³⁾의 장르 명칭의 논란이 된 것을 보더라도 문학계에

22) Paul Hernadi, *Beyond Gen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72, p.8.

서 장르의 확장은 개념 논의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문학적 생산력의 가치를 넓히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학의 탈장르적 양식의 일환으로 역사소설, 사회소설의 등장은 기존의 청소년문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현상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문학은 단순히 성장소설의 하위 장르, 한 유형에서 벗어나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의미 있는 발전의 시기인 만큼, 청소년문학은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학을 통해 세상을 모방한 어떤 다른 세상을 읽으면서, 세상살이의 모의훈련 혹은 가상훈련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문학의 다양한 장르류의 확대는 단순히 문학계의 발전, 확대의 장을 넘어서 청소년의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는 의미 있는 일이자, 서사적 양식의 변화 속에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3) 최근 한국 아동문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르는 역사동화이다. 역사동화라는 명칭은 ‘역사’와 ‘동화’의 결합이지만, 단순히 역사와 동화의 물리적 결합은 아니다. 역사동화를 쓰는 작가는 문학적 관습에 따라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을 쓰기 때문이다.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에 대한 작가의 인식 및 지평과 연관되며, 문학적 상상력은 역사적 상상력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능력과 연관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동화를 쓰는 작가는 역사라는 문학 외적 담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역사동화의 개념과 특성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생겨난다. 현재 아동문학계에서는 역사동화를 명칭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선주원,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13, 298-299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하은, 『바람이 노래한다』, 창비, 2009.
- 김도연, 『삼십 년 뒤에 쓰는 반성문』, 문학과지성사, 2010.
- 김민경, 『앉아있는 악마』, 비룡소, 2010.
- 김수경, 『망고 공주와 기사 올리버』, 사계절, 2009.
- 김윤영, 『달 위를 걷는 느낌』, 창비, 2014.
- 김이연, 『나는 즐겁다』, 사계절, 2011.
- 김이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창비, 2012.
- 김종광, 『착한대화』, 문학과지성사, 2009.
- 김종광, 『처음 연애』, 사계절, 2008.
- 김중미, 『조커와 나』, 창비, 2013.
- 김하은, 『얼음붕대스타킹』, 바람의아이들, 2014.
- 김한수, 『너 지금 어디 가?』, 창비, 2013.
- 김해원, 『열일곱 살의 털』, 사계절, 2008.
- 김현희, 『팥빵 먹을래, 크림빵 먹을래?』, 실천문학사, 2014.
- 김혜정, 『독립명랑소녀』, 문학과지성사, 2011.
- 남상순, 『나는 아버지의 친척』, 사계절, 2006.
- 남상순, 『키스감옥』, 문학과지성사, 2012.
- 문선희, 『장다리꽃』, 사계절, 2004.
- 박상률, 『나는 아름답다』, 사계절, 1999.
- 박상률, 『너는 스무 살, 아니 만 열아홉 살』, 사계절, 2006.
- 박선희, 『도미노 구라파식 이층집』, 사계절, 2011.
- 박선희, 『줄리엣 클럽』, 비룡소, 2010.
- 박선희, 『과랑 치타가 달려간다』, 비룡소, 2009.
- 박영희, 『대통령이 죽었다』, 실천문학사, 2009.

- 박재란,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 사계절, 2009.
- 박향, 『얼음꽃을 삼킨 아이』, 실천문학사, 2010.
- 배봉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계절, 2009.
- 변소영, 『이히 리베 디히』, 북멘토, 2014.
-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문학과지성사, 2010.
- 송경아, 『누나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창비, 2013.
- 신여랑, 『이토록 뜨거운 파랑』, 창비, 2010.
- 신지영, 『프렌즈』, 북멘토, 2013.
- 이경자, 『순이』, 사계절, 2010.
- 이경혜,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바람의아이들, 2004.
- 이경화, 『나』, 바람의아이들, 2006.
- 이남희, 『비밀 노트와 힐링 글쓰기』, 실천문학사, 2013.
- 이상운, 『내 마음의 태풍』, 사계절, 2004.
- 이옥수, 『내 사랑, 사북』, 사계절, 2005.
- 이옥수, 『키싱 마이 라이프』, 비룡소, 2008.
- 이은용, 『그 여름의 크리스마스』, 문학과지성사, 2016.
- 이재민,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 사계절, 2003.
- 이제미, 『번데기 프로젝트』, 비룡소 2010.
- 이현, 『1945, 철원』, 창비, 2012.
- 이현, 『그 여름의 서울』, 창비, 2013.
- 임태희, 『나는 누구, 아바타일까』, 사계절, 2007.
- 임태희, 『정체』, 바람의아이들, 2013.
- 장우, 『빼앗긴 오월』, 사계절, 2015.
- 정유정,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비룡소, 2007.
- 조명숙, 『농담이 사는 집』, 문학과지성사, 2010.
- 진희, 『첫눈이 내려』, 사계절, 2015.
- 최모림, 『마음이 사는 집』, 북멘토, 2013.
- 최민경, 『십자매 기르기』, 문학과지성사, 2011.

- 최성각, 『거위, 맞다와 무답이』, 실천문학사, 2009.
 최성수, 『무지개 너머 1230마일』, 실천문학사, 2013.
 최인석, 『약탈이 시작됐다』, 창비, 2010.
 탁경은, 『사이파』, 사계절, 2016.
 한정기, 『나는 브라질로 간다』, 비룡소, 2008.
 한정영, 『오드아이 프라이 데이』, 사계절, 2014.
 한정음, 『비보이 스캔들』, 북멘토, 2012.
 홍명진, 『앨리스의 소보로빵』, 북멘토, 2015.
 황선미, 『바람이 사는 꺾다리 집』, 사계절, 2010.
 황성미, 『틈새 보이스』, 문학과지성사, 2016.

2. 단행본

- Austin Warren & Rene Wellek, 백철·김병철 옮김, The Theory of Literature, 신구문화사, 1959.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66.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지성사, 1990.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2.
 박진, 『장르와 탈장르의 네트워크들』, 청동거울, 2013.
 선주원,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13.
 선주원, 『청소년 문학교육론』, 역락, 2008.
 아니스 바와시·메리 요 레이프, 정희모 외 여럿 옮김, 『장르: 역사·이론·연구·교육』, 경진출판, 2015.
 오세란, 『청소년문학의 정체성을 묻다』, 창비, 2015.
 오세란,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청동거울, 2013.
 우한용,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임철규, 『우리시대의 리얼리즘』, 한길사, 2009.

임헌영 외 여럿,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2.

3. 논문

Harry Levin, *Contexts of Criticism*, Cambridge/MA.: Harvard UP, 1957.

Paul Hernadi, *Beyond Gen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72.

구자황, 「성장소설과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 - 교육 정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7집, 우리문학회, 2012, 193-218면.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문학’ 연구: 교육적 관점과 미적 관점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제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 60-83면.

김중신, 「청소년 문학의 재개념화를 위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11-36면.

나병철, 「청소년 시점의 두 유형과 성장의 문학교육적 의미」, 『청람어문연구』 제53집, 청람어문연구, 2015, 377-408면.

나병철, 「청소년 환상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와 ‘가치의 세계」」, 『청람어문연구』 제42집, 청람어문교육, 2010, 399-430면.

송수연, 「청소년문학과 성(性)」,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201-224면.

오세란, 「청소년문학과 청소년문학이 아닌 것」, 『창비어린이』 7(1), 창작과 비평사, 2009, 160-175면.

정현아,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성과 사랑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정혜경, 「이 시대의 아이콘 ‘청소년’(을 위한) 문학의 딜레마」, 『오늘의 문예비평』, 2008 겨울 통권 71호, 2008, 107-123면.

최윤정, 「한국 청소년문학의 폭력 문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하은애, 「현대 한국 청소년소설 주제 유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7.
허병식, 「청소년을 위한 문학은 없다」, 『오늘의 문예비평』, 2009 봄 통권
72호, 2009, 63-82면.

【Abstracts】

Juvenile Literature genre and Escape genre: Focusing on 'Uniqueness' beyond Bildungsroman

Yun Hyeo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juvenile literature into material, that is, theme, since 2000 's, to escape genre style and genre style of juvenile literature. The division of juvenile literature into material aspects is based on Warren's literary classification criteria. What I have noticed in my inner form is to deepe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of juvenile literature with various voices, without greatly disturbing the universal character of juvenile literature called 'growth story' of existing youth. What does it mean in Juvenile literature? And focuses on comparing and exploring the motifs and materials of the narrative style.

In other words, he focused on the expressionistic concept to understand the true intention and central idea that the artist intends to say in the work in the Juvenile literature. However,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non-purity' of the genre, it is rather a position to reject the prejudice of the fixed and schematic system and recognize the inclusion of various genres within a work. While acknowledging that it is inevitable for many genre elements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in the work,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genre are clarified and the genre is divided into the most appropriate genre of the criteria when classifying it.

As a result of sharing the representative novel genres of youth

literature as 'genres', the core material of youth novels is not the diversity without the intersection but the 'what' . Therefore, juvenile literature as the 'genre' literature is the most meaningful literary literature.

As a 'escape genre', youth literature is not a breakdown of existing genres, but a variation or combination of genres that the text possess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historical novels in the escape genre style of juvenile novels are based on historical events and include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ethnic, and minorities (including sex minorities), which are social problems of today.

Efforts to scrutinize Juvenile literature can be resolved through genre research. This is the reason for the Juvenile literature as a meaning of the escape genre style beyond the existing genre style of Juvenile literature as a dynamic point of view. It can be a driving force to see.

Key Words: Juvenile Literature, Escape genre, Types of novels

이 논문은 2017년 10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1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1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